

# 해상실크로드와 주변국 對應

2015.10.2

이선진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 1. 중국 실크로드 전략의 발전

(1) “일대일로” 제안 (2013.9 및 10월), “일대일로” 비전 및 행동 계획 (2015.3)

(2) 2014년 Map과 2015년 Map 차이 (별첨: old & new Map)

- 남태평양 지역 포함. 단,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blank 상태
- “일대” (중양아)와 “일로” 연결, 경제회랑 건설 (5.27 총칭 회의).  
예로,
  - i)중국-몽골-러시아, ii) TCR, iii) 중국-동남아, iv) 중국-파키스탄, v) 중-미얀마 -방글라데시-인도, vi) 중-중양아-서아시아 연결 경제회랑 등

(3) “일로”전략 발표이후 중국의 대 동남아, 남아시아 주요 사업

- 대 아세안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후술)
-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건설 양해 각서 (2015.)
  - 총 51 개 프로젝트, 460 억 불, 과다르 항 개발,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신 건설 등), 에너지, 산업 협력 등(사업 리스트:Wikipedia 참조)
- 중국-인도네시아 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15.3)
  - 중국 ODA: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목적 30억불 제공(2015.9), 추가로 500억 불 제공 계획 (인니 경제조정장관 발언, JP 보도)
- 주요 항만 개발: 시트웨(미얀마), 과다르 (파). 치타공 (방글) 등

(4) 대 아세안 新規 10 개 협력 사업 (2015.8 ASEAN+ 중국, 왕이 외교부장)

- 2016년을 China-ASEAN educational exchanges 지정
- 중-A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협정 실효 기반 구성
- international production capacity cooperation 논의
- consult with A on the formulation of an overall plan about connectivity.
- creating new highlights for C-A maritime cooperation.
- promote Lancang-Mekong cooperation
-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첫 국방장관회의
- peace and sta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등

## 2. 주변국들의 대응

### (1) 아세안

- 아세안 또는 개별 국가 중 해상 실크로드 지지를 공식 발표한 국가는 없음.
  - 적극지지: 태, 캄, 라오스
  - 소극지지: 필, 베트남, 미얀마
- 단, AIIB, 남중국해 협력 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참가 및 지지
- 아세안 반응: 사전 협의 부재 (co-ownership), 전체 action program 미공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 인도네시아 Jokowi 대통령의 해양강국 정책

### (2) 일본: 아베의 대 중국 견제 정책

- 대 아세안 경제 진출 강화
  - ODA: 1100억 불 규모의 아시아 건설 기금, 200 억 불 규모의 대 아세안 기금 (2014- 5년 간), 약 61 억 규모의 메콩 유역 개발 기금 (2016- 3년 간), 추가하여 개별 국가의 주요 project에 대한 지원 등
  - 민간투자: 2012년 이후 대 아세안 투자 급증 (1985년 이후 두 번째 wave<sup>1)</sup>)

---

1) 싱가포르 SIEAS 연구 결과 (2015 # 33-2014)

- 아베, 취임 1년 내 아세안 10 개국 방문 등
- 대 아세안 군사. 안보 지원 개시
  - [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안경비정 제공 및 방산 협력](#)
  - 남중국해 감시를 위한 자위대 파견 가능성 시사 (신 안보법 심의 과정)
- 아베, 인도, 호주, 미국과 연계하여 대중국 견제<sup>2)</sup>
  - [2015.9.29 U.S.-India-Japan Trilateral](#) (Foreign) Ministerial (국무부 발표)

### (3) 인도: 모디 총리 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정책

-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와 대중국 세력 확대 견제 목적
- 인도를 겨냥한 일본, 중국, 미국의 활발한 외교전 전개 중

### (4) 미국: 시진핑 방미 시 양국 간 특별한 쟁점 사항은 보이지 않음

- 시진핑, 남중국해 매립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겠다, 태평양에서 미.중 공존, AIIB 미국 가입하면 환영 등
- 북한 핵, 남중국 해 등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였으나, 대립하지 않음.
- 일본, 아세안 언론, 방미 결과에 대해 무관심, 소극적 반응

### (5) 여타 주요국의 대응

- 러시아, TSR (vs. TCR),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一帶”-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에 기대
- 유럽, 장기적으로 중국-유럽 경제의 연계, 단기적으로 중국-유럽 교통망 연계 (철도 포함) 사업에 기대. 또한 [유럽의 Euro Investment Fund](#) (3,150 억 유로 규모, 인프라 건설)에 중국의 참가 표명에 크게 고무

---

“The Second Wave: Japanese FDI to Southeast Asia” *By Malcolm Cook*

2) 아베, “I envisage a strategy whereby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S. state of Hawaii **form a diamond to safeguard the maritime commons** stretching from the Indian Ocean region to the western Pacific. “ (2012.12)

### 3. 중국 "一路" 전망 및 도전

#### (1) 중국의 중점 세계 전략 (예상)

- "일대일로" action program 확정, 시행. 그 중 **중점 사업은**,
  - 중국-파키스탄 및 중국-미얀마-인도 (방글라) 경제 회랑
  - TRC 철도 건설 및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presence 확보**
  - 동남아 철도 건설(일본과 첨예한 경쟁), 인도네시아 지지 확보
- 대국관계
  - 지속적인 러시아, EU 지지 확보 및 인도와의 engagement 지속
  - 일본 견제,
  - 중, 일 관계에서 미국의 중립적 지위
- 주변국 외교 지속. 단, **아시아 안보 메커니즘 추진**은 서두르지 않을 것임

#### (2) "일로" 추진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대국들의 경쟁과 견제가 확대되고 가열 추세
  -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동남아, 남아시아로 확대
  - 미국 대신 일본이 대 중국 견제세력 구축의 선봉장 -> 가열화
  - 인도, 인도네시아의 해양 전략이 대국들의 경쟁을 가열화
- **동아시아 정치/경제적 활력이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南下**
  - 동남아를 겨냥한 일. 중. 인도의 경쟁이 가열화 -> 아세안의 부상
  - 동남아의 지리적 위치, 경제적 부상 및 AEC 발족

#### (3) "일대일로" 추진의 도전

- 중국의 내부 사정: 중국 경제, 전국적인 열기의 조화, 외교 방식의 전환(전통적 China-centered diplomacy -> co-ownership, inclusive, consultative)
- 향후 동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 Abenomics의 장래, 러시아의 정책 등

### 4. 한국에의 함의: 생략

- **참석자들과 의견 교환**

[OLD MAP, 2014]

新丝路·新梦想 | 图解丝绸之路



[NEW MAP, 2015]



最新公佈的“一帶一路”路線圖。

## 중국·일본의 최대 격전지- 동남아

-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거점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 동남아 지역이 중일 양국 국가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동남아 지역이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이제는 세계 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치, 경제적 영역(sphere of influence)을 이 지역에 구축하려고 한다. 중국은 아세안과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화교 세력이 이 지역 경제를 쥐고 있다. 이를 활용해 중국-아세안 경제 연계를 강화하고 동남아를 세계 전략의 교두보로 확보한다는 구상이 '시진핑 실크로드 전략'에 함축돼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은 고령화, 소비시장의 축소 등 자국 경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동남아 지역의 경제적 거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1년 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일본 기업들은 2012년 이후 아세안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향후 투자 대상으로 중국, 인도보다 아세안을 선호한다는 최근 일본 기업 조사도 있다. 동남아는 일본의 해외 최대 생산기지이며, 6억3000만명의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에 대해 일본 정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아베 총리,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가 수시로 동남아를 찾고, 아세안에 대한 초청외교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제에 국한해 보면, 일중 경쟁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 풀기' 경쟁이다. 시진핑이 1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은행(AIIB)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아베는 1100억달러의 아시아 건설 기금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 40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 아세안 유무상 원조 총액이 매년 4억 달러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둘째, 인프라 건설 수주 경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철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 운송이 한계를 보이면서 노후한 철도를 고속 철도로 교체하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결, 태국, 도시철도 건설 등을 두고 중일 경쟁이 치열하다. 동남아 물류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다. 그 외 댐(발전소), 항만,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 부딪치고 있다.

셋째, 교역과 투자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대외 교역 대상이자 수출 시장이다. 2020년까지 대 아세안 교역을 1조달러(현재 40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계획이다. 한편, 아세안의 최대 FDI 공여국은 일본이다. 2013년도 일본의 대 아세안 투자가 대 중국 투자의 2.5배에 달한다. 방위 산업 분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은 작년 해외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했고, 중국은 금년 처음으로 중·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잠수함을 포함 방위산업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중일 경쟁이 한국 경제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 활력이 동북아에서 동남아·남아시아로 옮겨가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한국만 홀로 뒤처지고 있다.

지역 경제협력 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두 나라가 협력해 지역 분업체제를 구축했고, 동아시아 경제를 크게 부상시켰다. 그러나 아·태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두 나라가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지역 협력 체제를 흔들고 있다.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한반도와 동북아만 머물러 있어서 걱정이다.

##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난 6월말 중국 실크로드 전략(일대일로·一帶一路) 중 '일대(一帶)' 지역을 찾았다. 중국 우루무치를 출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일대' 전략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중국 연구 센터 연구진에 참가했다. 중국의 '일대' 구상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지대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중국 지도부가 이 지역을 수시 방문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 개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총 인구 6600만명, 총 GDP 2950억달러에 불과한 작은 경제규모다. '일로'의 관문 아세안의 인구 6억4천만명, GDP 2조4000억달러에 비하면 1/10 규모에 불과하다.

이번 방문에서는 당초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 전략을 추진하는 까닭은 경제적 이득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아, 러시아, 유럽, 나아가서 미국까지 겨냥한 포석이다.

우선, '일대'의 관문 중앙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까지 중앙아 진출을 자제해 왔다. 이 지역이 구(舊) 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지금도 러시아가 정치, 경제, 정신적 맹주 역할을 하고 있고, 반(反)중국 정서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대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인프라 건설과 경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유혹을 거부할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반기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를 포함 중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지는 필수불가결하다.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달갑지 않을지 모르나, 서구의 재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으로 고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

부할 명분이 없다. 중앙아 건설에 중국, 유럽, 러시아가 함께 참여할 경우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할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셋째, EU의 전략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중앙아-유럽’ 경제의 연결은 중국, 유럽, 중앙아가 공유하는 꿈이자, 모두에게 희망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달 유럽 방문 시 ‘EU 인프라 기금’ 창설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작년 초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유럽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주요 EU 국가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중국이 EU 기금에 참여한다. 사전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대 EU 접근은 미국. EU 제후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미국이 아·태 및 유럽과 자유무역협정(TPP, TTIP)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이 중국이 세계 전략을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대한 행보도 흥미롭다. 무엇보다, 일본-인도의 안보 제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초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BRICS 은행설립이 합의됐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SCO 신규 멤버로 가입했다.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인도를 SCO에 가입시키고, BRICS 및 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창설에 참여시킴으로써 인도를 끌어안았다. 한편, 중국 주변지역 중 유일하게 동북아 지역만 ‘일대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베의 행보’가 계속되는 한 일본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일대일로’의 실천 계획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 시진핑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끝/